

지창욱×남지현 알콩달콩 케미 SBS 드라마스페셜 〈수상한 파트너〉

5월 10일(수) 첫 방송

새 SBS 드라마스페셜 〈수상한 파트너〉가 5월 10일(수)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수상한 파트너〉는 범접불가 뇌섹검사 노지욱과 무한긍정 아웃사이더 사법연수원생 은봉희가 미스터리한 사건을 겪으며 서로에게 빠져드는 심장쫄깃 개미지옥 로맨스 드라마다.

〈보스를 지켜라〉와 〈내 연애의 모든 것〉 등을 집필한 권기영 작가와 〈푸른 바다의 전설〉, 〈대박〉 등을 공동 연출한 박선호 감독이 의기투합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남녀 주인공 노지욱, 은봉희 역은 지창욱과 남지현이 맡았다. 드라마에서 처음 호흡을 맞추는 두 사람은 대본 리딩 때부터 찰떡 연기 공감을 과시해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지창욱이 연기할 노지욱은 수려한 외모에다 수학, 음악, 스포츠 다방면에 능력을 가진 팔방미인으로, 아버지의 꿈과 삶을 대신 살아가기 위해 검사가 된 인물이다. 그러던 중 은봉희를 만나 인생의 경로가 틀어진다.

남지현이 맡은 은봉희는 맑고 건강하며 한때 태권도 유소년 대표를 지냈을 정도로 강단 있는 캐릭터다. 운동을 그만둔 후 독기와 깡으로 공부해 검사가 되고, 지도검사와 수습검사의 관계로 지욱을 만나게 된다.

해외연수를 마치고 검사로 복직한 차유정 역은 나라(헬로비너스)가 맡았다. 차유정은 노지욱의 옛날 여자친구로 때론 안쓰럽게, 때론 당당하게, 때론 섹시하게 노지욱을 향한 여전한 마음을 드러내지만 도무지 반응이 보이지 않자 서러워한다.

노지욱의 친구 지은혁 역은 최태준이 맡았다. 지은혁은 복잡한 가정사로 혹독한 사춘기를 거친 뒤 변호사가 된 인물이다. 지욱을 처음 만난 열두 살 이후, 은혁에게 지욱은 유일한 친구이자 형제였다. 한순간의 실수로 지욱과 멀어진 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냉대에도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욱에게 다가간다.

이외에도 이덕화, 남기애, 윤복인, 김홍파, 장혁진, 김예원, 최홍일, 찬성, 허준석, 동하 등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이 드라마를 뒷받침한다.

배우들은 〈수상한 파트너〉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창욱은 “촬영이 기다려져 잠이 안 온다. 촬영장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즐겁다”고 촬영장 분위기를 전했다. 남지현은 “재미있게 촬영해서 전과 다른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고 각오를 밝혔다.

노지욱과 은봉희가 편견 가득한 세상과 싸우고 화해하며, 희생을 통해 성장해가는 스토리를 그릴 SBS 드라마스페셜 〈수상한 파트너〉는 〈사임당, 빛의 일기〉 후속으로 5월 10일(수)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인터뷰
이 사람

“선거방송 名家의 위용 지켜나가겠다”

- 김성준 보도본부장(〈2017 국민의 선택〉 메인 앵커)

선거방송팀에서 SBS 선거방송의 무기는 김성준 앵커라고 한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선거방송이든 〈8 뉴스〉든 늘 변함없는 자세로 임하려고 한다. 선거방송팀에서 앵커가 ‘늙었다’는 이유로 체력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혼자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몇 해 동안 연부역강한 앵커진용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믿는다.

이번 선거방송은 SBS 뉴스가 그동안 축적해 온 선거방송 노하우를 완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보와 재미, 의미 모든 면에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Live Entertainment Show of Trut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몇 번째 선거방송인가?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메인 앵커로 6번 정도 참여했고, 선거방송팀의 일원으로 참여했거나 코너 출연자로 참여한 것을 합하면 열 번 남짓 된다. 에피소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1996년 총선 당시 국내 최초로 버추얼 스튜디오를 도입해서 기획과 제작을 담당했는데 첫 방송에서 가상 세트가 멈춰버리는 바람에 앵커가 가상의 세계에 고립돼 버리는 방송사고가 났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 2002년 대선에서는 개표상황의 마라톤식 중계가 기억난다. 두 후보의 득표수를 그래프로 보여주다가 1, 2위가 바뀌는 순간 음향과 함께 역전 상황을 마라톤 중계처럼 재미있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뒤집힐 듯 뒤집힐 듯 뒤집히지 않는 상황이 20분 넘게 계속되면서 이영춘 앵커와 내가 거의 목이 나갈 뻔했다. 2012년 대선 때는 시청자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출구조사결과 발표 15분 전에 앵커가 결과표를 미리 받아서 보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는데, 내 표정을 놓고 SNS상에서 각 진영 지지자들 사이에 논란이 붙었던 기억도 있다.

각 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선거방송팀에서는 당일에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에 주목해야 하는지?

선거방송팀이 ‘선거방송의 명가’ SBS의 전통적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남들이 넘보기 어려운 강력한 바이폰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청자

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바이폰도 재미있으면서 정보가 눈에 쏙쏙 들어오는 방식으로 표출될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소용돌이 같았던 지난 6개월 여에 지친 유권자의 마음을 달래준다는 취지에서 감성적인 분위기의 바이폰이 활용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언제 채널을 돌려서 우리 개표방송에 들어오더라도 그 시점의 판세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SBS만의 필수 무기들이 잘 준비되고 있다.

〈대선 후보자 초청토론〉에서 보여준 깔끔한 진행에 대해 칭찬이 자자하다.

진행보다 첫 토론을 SBS가 주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후보들이 잘 준비한 내용을 갖고 치열한 토론을 해서 관심도가 높았던 것 같다. 각 당 경선 후보 토론 때부터 우리



만의 방식으로 채택했던 각 후보의 공약 PT와 질의응답에 대한 반응도 좋았다. 무작정 시간을 받아서 아무 토론이나 벌이는 형식보다 짜임새 있고 이해가 잘 된다는 평이 많았다.

진행으로 말하자면, 가급적 토론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불가피하게 몇 차례 개입을 해야 했다. 유례없이 짧은 후보 검증 기간에 유권자들이 조금이라도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공약 토론이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정책 토론 도중에 의혹과 자질 공방이 벌어지면 한편으로는 ‘그냥 내버려 두면 시청률이 더 올라갈 텐데’하는 악마 같은 욕심이 생기기도 했다.

JTBC 손석희 앵커와 많이 비교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자 초년병 시절부터 “너는 손석희 앵커를 닮았으니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손석희 앵커처럼 돼라”는 얘기를 들었다. 혼자서 ‘손석희 앵커는 손석희 앵커고 김성준은 김성준이지’라고 생각했다. 그런 간접적인 인연이 서로 일면식도 없이 지금까지 수십 년 이어오고 있다는 게 희한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손석희 앵커는 진행능력은 물론이고 조각조각 나뉜 뉴스를 큰 그림으로 조망할 수 있는 판단력이 배울 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기자생활 26년의 경험이 녹아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도본부장으로서 어떤 뉴스, 어떤 보도본부를 만들고 싶은가?

새로운 SBS 뉴스의 지향점은 ‘대체 불가능한 뉴스’다. 시청자들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보를 얻으려면 SBS 뉴스를 볼 수밖에 없다고 느끼게 하자는 뜻이다. 성역 없는 보도는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 시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문적인 분석을 곁들여 포만감 있게 전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는 뉴스를 만들고 싶다. 또 딱딱한 뉴스가 아니라 재미있는 뉴스를 지향한다. 타깃 시청자는 20-49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뉴스를 하려고 한다.

이런 지향점을 향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소통이 필수적이다. 가능한 한 선후배 기자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있다. 후배들이 본부장에게 편하게 묻고, 요구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비전캠페인

SBS 사훈

건강한 콘텐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 ▶ 우리는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는 사람들
- ▶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는 사람들
- ▶ 우리는 어제의 우리를 뛰어넘는 사람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사훈의 의미를 완성해 갑시다

SBS, 페이스북과 손잡고 '혁신적인' 선거방송 예고

선거방송 최강자 SBS와 SNS 최강자 페이스북이 대통령 선거 단독 파트너 제휴를 맺었다. SBS는 신선하고 특별한 콘텐츠를 별도 제작해 페이스북에 단독 공급하고, 페이스북은 이를 많은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 페이스북은 SBS에 대선 관련 빅데이터를 독점 공급하며, SBS는 이를 활용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선거방송을 선보인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후보 검증 <대선 후보 라이브>

'모비딕' 제작진이 만드는 <대선 후보 라이브>가 4월 21일 문재인 후보 편을 시작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선 후보 라이브>는 기존의 딱딱한 토론에서 벗어나 각 대선 후보들의 솔직한 인간적 면모를 조명한다. '모비딕', <SBS뉴스>, <스브스뉴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중계되며, 네티즌들이 직접 댓글로 질문을 하거나 반응을 남기며 대선 후보와 실시간 소통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NS 1위 페이스북의 대선 관련 빅데이터 독점 분석

SBS는 하루에 수백만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해본다. 대선 후보들의 페이스북에 담긴 비밀, 각 후보 팔로워들의 취향 등은 물론, 선거 당일 실시간 교류량까지 분석한다. 투표 인증샷 이벤트도 페이스북과 함께 진행한다. '투표 인



증샷'을 처음으로 선거방송에 도입한 SBS는 이번 대선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투표 인증 샷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대선 관련 정보를 한 눈에~ 특별 페이지 '포커스'

뉴미디어국이 페이스북과 협업해 만든 19대 대선 특별 페이지 '포커스'도 눈길을 끈다. 포커스는 페이스북 데이터

분석 파트너인 클라우드탱글, 태그보드와 단독 제휴를 통해 페이스북에 숨은 표심을 찾아낸다. 포커스 페이지 안에서 대선주자들의 타임라인을 한눈에 볼 수도 있다. 한 주 동안 대선주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분석해 각 주자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를 통계로 보여주는 코너도 마련했다.

'2017 민영방송의 날' 기념식 개최, JIBS <제주 미래 100년의 설계> 대상 수상



'2017 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이 4월 18일(화)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최문순 강원도지사과 지역 국회의원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천 대명 비발디파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박정훈 한국민영방송협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방송계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영 지상파 네트워크부터 힘을 합쳐 국내 최강의 콘텐츠 영향력을 확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경쟁사 대비 최고의 시청률을 바탕으로 광고시장을 선점해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상파를 옥죄는 중간광고 금지조항 등 각종 불합리한 차별적 규제 요소를 혁파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을 빛낸 영예의 민방대상은 JIBS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의 특별대기획 <제주 미래 100년의 설계>(연출: 송철민)가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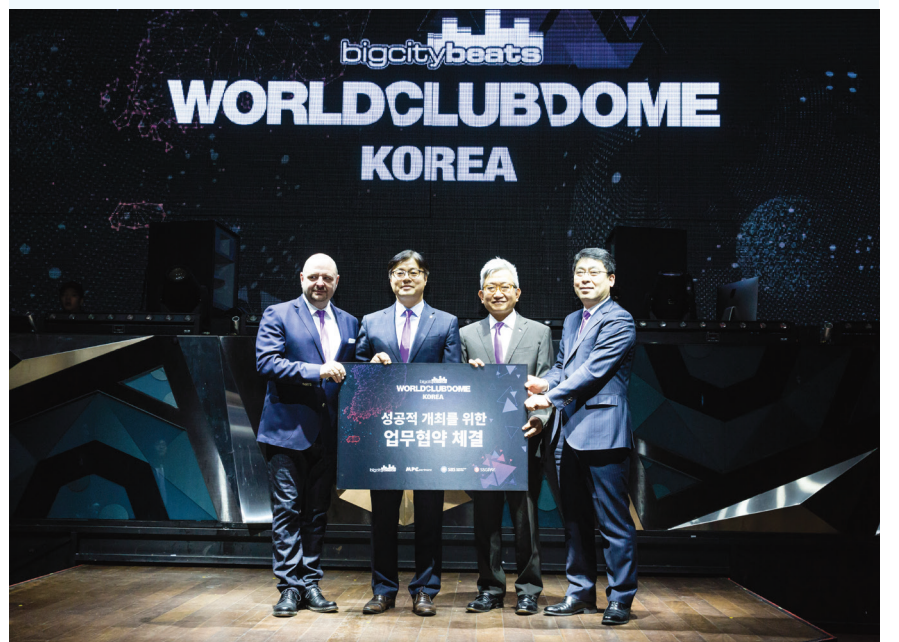
최우수상은 G1 강원민방의 <DMZ 스토리>(연출: 손승원)가, 우수상은 KNN의 특집다큐 <장애를 넘어 공감으로 - 어둠속 오페라 라보엠>(연출: 이근호, 정희정), UBC 울산방송의 창사특집다큐 <잊혀진 바다의 기록 - 섬의 노래>(연출: 조민조), JTV 전주방송의 특집다큐 <강물처럼 들꽃처럼>(연출: 송의성) 등 3작품이 수상했다.

개인상 부문의 경우, 네트워크 기자상은 TBC 박정, CJB 청주방송 이운영 기자가 공동 수상했고, 네트워크 기술상은 TJB 대전방송 김효순 경영기술국 부국장이, 네트워크 공로상은 KBC 광주방송 김현중 콘텐츠전략실장이 받았다.

SBS 콘텐츠허브 아시아 최대 규모의 EDM 행사 '월드클럽돔' 공식파트너로 참여

SBS콘텐츠허브는 4월 13일(목) 강남구 논현동 '클럽 옥타곤'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EDM (Electronic Dance Music) 행사인 '월드클럽돔 코리아' (World Club Dome Korea)의 주최사인 빅시티비츠(BigCityBeats), 국내 주관사인 MPC파트너스와 공식파트너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빅시티비츠 CEO 번 브라이트(Bernd Breiter)와 (주)SBS콘텐츠허브 유종연 대표를 비롯해 협력 파트너사인 인천광역시,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신세계 INC(SSG페이), 퍼블리시스원, 그리고 주관사인 MPC파트너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클럽(The Biggest Club in the World)'이라는 슬로건으로 2013년 독일에서 시작된 '월드클럽돔'은 매년 15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세계적인 EDM 행사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월드클럽돔 코리아'가 오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The Asian Summer Festival Closing Week' 라는 콘셉트로 열린다.



빅시티비츠 번 브라이트 대표, SSG페이 김승환 상무, SBS콘텐츠허브 유종연 대표, MPC파트너스 안양규 대표

부서
탐방



빠르게 변하는 뉴미디어 기술...

“어떻게 최고·최초” 되기 위해 밤낮없이 매진

- 경영본부 기술국 뉴미디어개발팀

‘2017 방통위 대상’ 특별상을 받았다. 어떤 내용인가?

2016년 세계 최초로 지상파 방송의 최신 규격인 ATSC 3.0 기술을 적용한 UHD TV 실시간 송출에 성공하고 시험방송을 개시하는 등 지상파 UHD TV 표준 완성과 그 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특별상을 받았다.

뉴미디어개발팀을 소개해 달라.

이름만 보면 최근에 생긴 팀 같지만, 창사 초기부터 있었다. 기술연구소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현재는 팀장, 연구개발 13명, 연구지원 1명을 포함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팀은 다음과 같이 3개 연구실로 나뉘는데, 각 실 단독, 혹은 콜라보를 통해 회사의 수많은 기술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연구실은 파일 기반의 방송 자동화, 광고의 직접송출(CM-Express), 제작 및 아카이브 연동 등 방송 미디어 관련 업무의 프로세스 혁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사적 콘텐츠 ID 통합과 메타데이터 연동, 대체 광고와 커머스 등 IT 기반 신규 서비스의 기반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구 2실은 선거방송, 각종 자막 시스템, 기상 그래픽 시스템 등 대부분의 CG 기술을 개발한다. 최근에는 SBS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추적하는 ‘불법 스트리밍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 중인데, SBS 콘텐츠가 가치를 인정받으며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연구 3실은 뉴미디어 방송방식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HD TV, DMB, 3D TV, 스마트 TV, 그리고 최근의 UHD TV 도입까지, 뉴미디어 시대에 필요한 방송기술을 개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편, 동영상 포털 인프라인 ‘OPS’ 구축 사업에는 3개 실이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 팀은 기업 부설 연구소로서 정부가 주도하는 굵직한 기술 개발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등에서 세제 혜택도 받고 있다. 분기/반기/연간 연구실적은 전자공시를 통해서 늘 공개된다.

뉴미디어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것 같다.

지속적인 공부와 연구개발은 필수다. 뉴미디어 발전 속도에 맞춰 제때에 기술 개발을 하지 못하면 바로 회사의 경쟁



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부분의 신규 서비스와 기술 도입은 특별히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사우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남보다 먼저 하려면 그만큼 위험부담도 큰데...

“No Risk, No Gain”
그렇다고 무작정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기에,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 전에 유관 부서와의 협의 등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다. 고위험의 선도기술 연구개발은 정부 주도의 국책 과제 참여 등을 통해 회사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기술 연구소와의 관계는?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업한다. 현재 방송협회 산하에 ‘R&D 특위’가 구성돼 지상파 방송사 연구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각종 방송기술 이슈에 협력하고 있다. 경쟁 면에서는 SBS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의 약점을 커버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번에 수상한 방통위 특별상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다.

요즘 부서의 핫 이슈는?

대선 방송용 아이폰 개발, 지상파 UHD TV 본방송 준비,

프리미엄CM용 CM-Express 기술 개발, SBS 동영상포털 OPS 2단계 구축, 콘텐츠 통합 ID 생성 기술 개발, 기타 SBS 구성원들이 행복해질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UHD TV와 선거방송 준비 상황은?

5월 31일부터 시작될 UHD TV 본방송에 대비하여 시험방송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상용화되는 방식의 방송이라 준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UHD추진팀, 기술인프라팀, 송출기술팀 등 사내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본방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은 특히 새로 도입한 장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거방송은 SBS가 2012년 이래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SBS를 벤치마킹한 경쟁사들의 추격에 살짝 긴장하고 있으나, 이번에도 2049 시청률 1위는 무난할 것이다. 지금도 밤낮없이 기자와 작가들이 기발한 밑그림을 그리고, 우주 최강의 디자인팀이 아름답게 색칠하고 있다. 우리 팀은 이 훌륭한 그림에 우리만의 노하우가 축적된 동영상 기술을 부지런히 입히고 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스포일러가 된다. 5월 9일을 기대해 달라.

<희망TV SBS>, 100번째 희망학교에서 미디어 워크숍



<희망TV SBS>는 아프리카 100번째 희망학교인 탄자니아 잔지바르의 과라라 투마이니 중등학교 미디어교육센터에서 현지 제작 요원들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SBS가 설치해준 방송 장비의 점검과 함께 (주)대교에서 기증한 영어회화 교재용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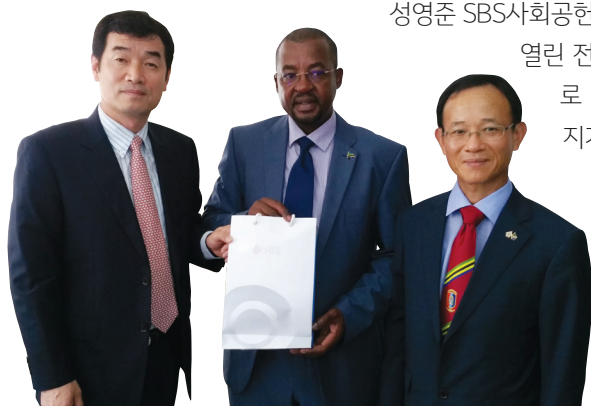
흥미롭고 유용한 교육용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성영준 SBS사회공헌담당, 채수현 라디오기술팀장, SBS A&T 이종욱 카메라감독, 김종환 기술감독, 그리고 SBS 예능국 출신 안지용 PD가 참가하여 다양한 현업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했다. 이 워크숍은 2017년 상반기 <희망TV SBS>를 통해서 시청자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SBS, 탄자니아 방송에 SBS 콘텐츠 50편 기증

SBS는 탄자니아 공영방송사인 탄자니아 방송(TBC)에 SBS 콘텐츠 50편(영어 자막본)을 기증했다. 이는 올해 1월에 개최된 탄자니아 잔지바르 ‘과라라 투마이니 희망학교’ 개교식 때 주탄자니아 한국대사관이 SBS에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성사됐다.

탄자니아 방송사는 이 콘텐츠를 일정 시간대에 정규 방송할 계획이며, 특히 한-탄자니아 수교 25주년이 되는 4월 30일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방송할 예정이다.

성영준 SBS사회공헌담당은 4월 24일(월) 현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콘텐츠 기증을 계기로 탄자니아 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영준 SBS사회공헌담당,
Ayub Rioba Chacha TBC 사장,
송금영 주탄자니아 한국대사